

불자 세상보기



송세운 동국대 명예교수

팩스 시니카

새해 들어 팩스 시니카(Pax Sinica)란 말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다. 팩스 아메리카나에 대한 대칭어이다. 과거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서 이제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로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2010년 일베를 제치고 G2, 즉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은 빠른 산업발전과 군사력 신장을 통해 새로운 패권국가(霸權國家)로 부상하고 있다. 더욱이 북지연만 몰두하다 경제가 거대한 EU와 월가의 탐욕으로 침체한 경제를 아직도 안고 허덕이는 미국 때문에 세계는 중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제 경제든 군사든 지구촌의 풍향은 미국보다 중국에 먼저 불어와야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태평양 건너 미국만 바라보고 산 우리로서는 이제 새삼 중국의 패권시대에 대비해야 할 국가적 전략도 필요하게 됐다.

왕도와 패도

패권이란 힘으로써 사람이나 국가를 복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전국시대의 맹자(孟子)다. 맹자는 "무력으로 인정(仁政)을 가장하는 자는 패자(覇者)다. 패자는 반드시 큰 나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도덕으로 인정(仁政)을 실천하는 자는 왕자(王者)다. 왕자는 큰 나라를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탐입금은 70리로서 왕자가 됐고 문왕은 100리로서

왕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맹자의 이 말에서 이른바 왕도(王道)와 패도(霸道)란 말이 생겼다. 왕도란 이덕복인(以德服人) 즉 덕으로써 사람을 복속시키는 것이고, 패도란 이력복인(以力服人) 즉 힘으로써 억지로 사람을 복속시키는 것이다. 덕으로 사람을 복속시키면 그것은 마음으로 열복하여 따르는 것이니 이것이 심복이요, 힘으로 사람을 복속시키면 마치 못해 따르는 것이니 이것은 일종의 가복(假服)이다.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했다. 그리고 이후 유교의 이상정치는 왕도에 있었다.

그런데 중국 역사상 맹자가 말한대로 탐입금이나 문왕이후 왕도정치를 제대로 실현한 제왕은 없다. 전국시대는 물론 진, 한, 당, 송, 명, 청에 이르기까지 역대 제왕들은 힘으로 제국을 건설하고 또 그 힘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중국과 이웃한 약소국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패도정치로 일관했던 것이다. 무력으로 상대만 나라들을 제압하는 패도정치는 필연적으로 기미(霸權)정책을 수반했다. '기'는 말의 굴레이고 '미'는 소의 고삐다. 교묘한 명분을 내세워 이웃 소국들에게 굴레를 씌우고 고삐를 매어서 자기들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기미정책이었다. 중국 역대 제왕들은 다른 민족에 대하여 이러한 통제정책을 썼던 것이다. 그들의 너그러운 듯한 미소 속에는 언제나 '기미'의 무서운 속내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오늘의 대국 중국 역시 그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이이제이와 도광양희

그런데 패권주의란 말은 모택동 중국에서 처음 사용됐다. 60년대부터 모택동은 미국과 구소련이 세계를 무력으로 지배하려한다는 뜻에서 양국을 패권주의자들로

라고 맹비난하였다. 그러나 이런 말로 미, 소를 맹공한 중국이 불과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패권국가란 말을 듣게된 것이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나 할까. 모택동은 미, 소를 패권주의자들로 몰면서 자신은 이이제이(以夷制夷)정책을 썼다. 소련으로 하여금 미국을 견제해 하고 또 미국으로 하여금 소련을 역시 견제해 하면서 중국은 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다치지 않고 균형자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후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은 묘한 4자성어를 통하여 대내외정책의 방향을 나타냈다. 도광양희(道光養晦)는 칼집에다 칼날의 빛을 감추고 은밀히 어둠속에서 힘을 기르는 것을 뜻한다.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때 세계는 중국의 속내를 잘 몰랐다. 덩샤오핑은 또 주변국을 중국의 세력범위 안에 묶어두고 통제하는 기미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도광양희를 외교노선으로 삼았다고도 한다. 실로 무서운 패도(霸道)이다. 장쩌민은 해야할 일은 꼭한다는 유소작위(有所作為), 또 지금의 후진타오오는 평화로운 가운데 일어선다는 화평굴기(和平崛起)다. 그리고 화해(和藹)사회 건설이다.

대국굴기와 패권주의

2012년 중국은 대변관이 없는 한 시진핑(習近平)의 시대를 열 것이다. 예전대로라면 시진핑은 10월에 제18대 당대회를 거쳐 총서기에 오르고, 2013년 3월 국가 주석에 취임 할 것이다. 1953년생인 시진핑은 2008년부터 국가 부주석, 2010년부터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맡고 있다. 그는 국무원 부총리를 지낸 시중진(卞仲勳)의 아들로 제5세대 지도자가 된다. 시진핑은 "일반 대중은 역사를 만드는 원동력이다"라고 할 만큼 자유주의자로 알려졌다. 그리고 2009년 티베트 반정부 시위때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불거지자 "배부르고 할 일 없는 서양 사람들이 간섭을 한다"고 직격탄을 날릴만큼 과감하고 직선적이다. 젊고 패기있는 그의 이런 면모로 보아 시진핑 시대는 중국 대외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지금 중국의 경제력 군사력 등 국력과 새로운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보아 앞으로 중국은 그들이 흔히 쓰는 대국굴기(大國崛起)로 나아 갈 것이 분명하다. 중국이 큰 나라로 우뚝선다는 것은 지난날 역사로 보아 패권주의로 나아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패권은 힘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자의 권력이다.

모든 권력은 총구(銃口)로부터 나온다고 한 공산중국 제1세대 지도자 모택동의 말을 상기하면, 중국 공산주의에서 덕치의 왕도(王道)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은 한중 FTA를 합의 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저들의 패권주의를 극복하려면 어떠한 방법인가를 서로 윈윈(win-win)하는 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불교의 자리이타(自利利他)에 있다고 믿는다. 다행이 한중 양국은 정치제도는 서로 다르더라도 종교문화적 측면에서는 불교를 통하여 상당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66년부터 76년 모택동이 죽기까지 진행된 문화대혁명 기간에 있어 그때 홍위병들은 자기들 조상 공자를 비판하고 그 문화를 때려부셨지만 불교의 자비신앙에 대해서는 손상을 입히지 않았다. 그래서 관음성지나 그 도량은 훼손을 면했다. 자리이타는 대승의 근본으로 자비행에 든다. 양국이 점차 이와 같은 자리이타의 대승정신으로 정치 경제 면에서 서로 윈윈하는 길을 찾다면 한·중은 다같이 우열(優劣)없는 평등관계에서 가장 성실하고 내실 있는 동반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자리이타, 이것이 화두다.

社說

조계종, 더 많은 약자 보듬길

조계종이 우리 시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 속에 남다른 아픔을 겪으며 고통 받는 이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종교계 수장으로는 최초로 지난해 구속된 용산참사 관계자들의 사면을 촉구한 데 이어, 화쟁위원회가 한진중공업 회맹버스 관련 구속인사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을 요구한 것이 그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9일 용산참사 대책위(공동대표 조희주)를 찾아 용산참사 유가족 10여 명을 만났다. 스님은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특별사면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자승 스님은 최근 청와대에 용산사태 관계자들의 특별 사면을 요청해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또, 구속된 8명의 철거민들에게 위로 편지와 영치금 및 108염주 등을 선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자승 스님은 "용산참사의 1차적 원인이 세입자의 권리와 철거민에 대한 인권대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큰 이상 참사의 책임을 온전히 철거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고공크레인 농성이 한창이던 지난해에도 시위 현장을 찾아 화쟁의 논리로 해법을 찾고자 했던 화쟁위원회의가 최근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화쟁위는 성명서에서 한진중공업 사태를 대응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정부와 사법당국을 질타했다. 그리고 "회사 경영의 어려움과 적자 부담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경영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 속에

서 노동자 가장들이 결사적인 투쟁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라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서서 그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현재 한진중공업 농성과 관련해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이 재판 중이다. 화쟁위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 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사법적 조처만을 단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는 다원주의 사회이다. 한진중공업 사태와 용산참사는 견해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총무원장 스님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용산참사 사면 요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하지만 보수·진보의 대립에서 오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란 잠시 중지할 필요가 있다.

총무원장 스님과 화쟁위원회가 사면과 사법처리 중단을 요청한 것은 범법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면, 범법국가에서의 온정주의, 여론몰이를 통한 포퓰리즘이 아니다.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포석을 깔고 한 행동도 아니다. 대정부 메시지는 화해와 관용의 정신이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을 이룬다는 공생의 법문이다. 우리 사회 공생을 위한 문수보살의 지혜인 것이다. 또, 현장을 찾아 그들을 만난 것은 보현보살의 보현행이다.

이런 움직임에 연관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올해 불교사회복지 체계를 재정비하고, 아름다운 동행은 모금확대를 통한 대사회 지원활동을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동국대 김희옥 총장은 "불자는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실천하는 자비의 손길, 나눔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정리해고의 행보에 불자들의 원력이 모아지길 기대한다.

사부대중 칼럼

소중한 인연에 늘 감사하자



정운스님 조계종 교수이자리

법회를 시작으로 오래전부터 학생들을 만나왔고, 대학이나 사찰 불교대학을 통해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늘 학생들에게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쉽지 않다. 잠시나마 강단에 설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잊을

때가 많다. 근래 느끼는 점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배려심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서로를 칭찬하고 감사만 해도 모자랄 인생인데, 상대를 비방하고 집단적으로 마녀사냥을 통해 한 사람을 매장시키기도 한다. 이런 점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기심을 줄이기 위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천수경>첫머리에 등장하는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는 구입(口業)을 청정히 하는 의미이지만, 단순히 이 뜻만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훌륭하십시오" 라는 찬탄과 감사함도 내포되어 있다. 예수님도 '매사 어떤 일이든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는 긍정적 삶의 선택이요, 양태이다. 고래도 칭찬에 춤을 추고, 식물도 보살피준 만큼 성장한다. 작은 미물도 감사와 사랑에 반응하는데, 감정이 풍부한 인간에게 감사하고 사랑만큼 훌륭한 보약이 어디 있겠는가? 어느 누구나 고독한 존재로서 인간의 파스함에 목말라하면서 왜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방에게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떤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 두 가지를 염두에 두자.

먼저,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이다.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타인도 나만큼 소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다음은 이 세상은 중중무진 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사람과 자연, 사물에게도 감사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상대방은 두 배로 보답할 것이고, 서로 좋은 신뢰감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상대방을 위한 감사와 배려는 곧 나를 위한 것이요, 자신부터 행복하게 해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www.hyunbul.com www.hyunbul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 내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4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들을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예)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수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궁합 사주명리학
"天地陰陽의 兩氣는 春夏秋冬에 降하여 그 時에 生을 주어 有用한 것은 吉이 되고, 無用한 것은 凶이 된다."
진짜 궁합 내 인생을 바꾼다.
하늘은 이미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곱홉 命을 지니고 있다. 天理에 의하여 生하였으니 天理에서 벗어날 수 없다. 人事 뿐 아니라, 萬物은 모두 天地의 氣에 의하여 生生化育되는 것이다.
眞性 임동균 著 / 신국판 / 양장본 / 656쪽 / 정가 45,000원
육임이 보인다 新사주학 핵심비결 한국인의 별칭 자미두수 비법 4x6배판/양장본/70,000원
子平眞詮精解 그림 당사주 대전 4x6배판/이심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x6배판/양장본 1권 880쪽 2권 8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용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E-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사주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범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신 사람들은 방향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책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眞性 임동균 著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